**Tex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선교 활동 보고**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 헌금은 피지의 환경 이민자들과 함께합니다**

아무도 설리에게 돗자리를 펼쳐주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피지 섬의 부니도골로아[voo-nē-dō-gō-lōah] 공동체는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니도골로아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설리[Suh-lī]는 이주한 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앉을 돗자리가 없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은 가족과 손님이 동등하게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도록 하여 환영을 표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속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2014년 이후 섬나라 피지에서는 대략 4번의 이주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교회 협의회(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https://www.oikoumene.org/organization/pacific-conference-of-churches)의 생태 관리 및 기후 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프랜시스 나무무 [nah-moo-moo]에 따르면, 태평양 제도의 교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사이클론 시즌의 치명적인 영향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평화 증진을 위한 PCC의 노력은 [기후 변화](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environment/environmental-issues/climate-change/)의 영향이 야기한 정신 건강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이 중 일정 부분은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 덕분에 가능합니다](https://pma.pcusa.org/donate/make-a-gift/gift-info/PG999999/).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ace-global-witness/)은 그 중 절반이 교단 차원에서 평화 증진과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며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인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25%는 지역 평화와 화해 활동을 위해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25%는 지역 차원의 유사한 사역을 위해 중간 공의회로 보내집니다. 여기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이야기한다)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헌금을 …에(여러분의 사역을 언급한다) 사용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구상의 피조물에 우리가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입니다. 평화의 증진은 우리와 환경 사이의 관련성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외래종 꽃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와 전통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장로교 평화 증진 프로그램(Presbyterian Peacemaking Program)](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peacemaking/)의 책임자인 칼 홀튼 목사는 이 프로그램이 점점 더 이주와 기후 변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장로교인들의 “평화 증진에의 참여(Commitment to Peacemaking)](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peacemaking/making-commitment/)” 자료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는 “”[평화 증진에의 참여](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resource/commitment-peacemaking/)”는 '지구와 평화를 이루는 일’을 ‘연구, 옹호 및 환경을 중요시하는 청지기직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프랜시스는 PCC와 미국장로교의 파트너십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장로교로부터 받는 기금이 없었다면 우리는 설리의 공동체와 같은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그녀의 가족과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해 살기 좋은 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리는 혼자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촌 선교와 평화 특별헌금은 바로 이곳의 사람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것인 이 세상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좋은 선물을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 땅에 사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